북한의 결핵을 생각한다

북한의 결핵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1997년부터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계속된 경제적인 어려움에 겹쳐 1995년부터 3년간 계속된 자연재해(홍수, 가뭄, 태풍 등)는 북한의 경제 및 생활사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식량이나 에너지 공급(전력, 유류 등)은 물론 보건의료서비스도 거의 붕괴 되었다고 할 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핵의 경우 환자를 치료할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입원한 환자에게 필요한 식량, 전력, 수도, 난방 등 기초적인 공급마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나 재료, 시약 등도 태부족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요양소에 입원한 결핵환자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약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면서 1997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지원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는 유진벨재단이 주동이 되어 북한결핵돕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대한결핵협회에서도 비시지백신, 결핵치료약품 등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대한결핵협회내에 남북협력위원회를 조직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결핵실정은 우리 나라의 30~40년전 상황과 비슷해서 인구 100명당 3~5명정도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결핵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자들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원과 더불

사진은 북
결핵 요양
본회에서
비시지 백
결핵치료
전달 모습
(p24~25

박종달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 남북협력위원회 위원장

어 상당한 분량의 의약품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당국이 결핵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결핵관리를 돕고자 하는 국내외의 단체나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지원한다면 매 10~15년마다 환자수를 50%씩 줄여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의 결핵관리기법이나 치료처방은 과거에 비해서 그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노력을 펼쳐 나간다면 성과가 의외로 빨리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결핵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국가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조, 특히 경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0년 암스테르담의 서구 정상회담과 오끼나와의 선진국 정상회담(G7)에서는 30억불의 약품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이 기금의 지원대상이 될 것입니다. 북한당국, 남한당국, 대한결핵협회, 세계보건기구를 위시한 국제기구, 약품지원기금의 재원, 그리고 북한의 결핵을 돕고자 하는 단체들(유진벨 포함)과 개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북한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북한 동포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북한의 결핵문제는 우리의 결핵문제입니다. 결핵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돕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